

그것은 도예가 아니다.

폐기물이 문화로 되돌아가면서 무가치한 것은 다시금 가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은 비가치로 보일 수 있다.

-빌렘 플루서, 그림의 혁명-

벌써 20년이다. 김정범 작가와의 인연도. 그의 작업은 전위적이지만 기존 개념의 전복이나 일시적인 실험적 행위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작업은 도예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청화'나, '도자기'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거나, 또는 전통 도예/현대 도예라는 이분법적인 범주로 분류하여 이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의 작업은 처음부터 색이나 형태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모던적인 예술 개념과는 동떨어져 있다. 그보다 그의 작업은 도자 재료와 일상의 재료들을 보다 근원적으로 소유하는 포스트모던적인 예술 개념의 선상에 있다. 다시 말해 그의 작업은 색채나 형태에 대한 재해석뿐만 아니라 탈장르, 아니 그보다 폭넓게 인문학적인 해석으로 확장해서 탐구해가는 현대미술의 흐름에 뿌리내리고 있다.

그의 작업은 한마디로 말해 '해체'와 '재구축'이다. '해체'는 모던 시대의 학문적인 패러다임을 통해 분류했던 범주들(예술, 사회, 종교...)을 하나하나 분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재구축'은 해체한 것들을 이전의 개념들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범주들을 횡단하여 그 의미들을 새로운 개념으로 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해체와 재구축은 그의 작업에서 우리 자신을 역사적인 문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탈역사적인 문화로 이해하는, 또는 선형적인 사유에서 비선형적인 사유로의 이해하는 주요한 매개고리이다.

그의 작업들은 <Blue Ocean, 2021>이나, <Blue Head, 2020>의 작품들에서 보듯이 작품들의 의미들이 서로 연결되어 내러티브의 구조를 지니고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의 작업은 <Blue Ocean, 2021>의 작업에서 보듯이 작품 하나하나로도 독립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의 작업은 <Blue Ocean, 2021>의 작업에서 보듯이 단순한 기호들을 내재한 하나의 시(詩)와 같다. 하지만 그 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기호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회가 그에게 부여한 기호들을 하나하나 해체하고, 자신이 부여한 기호들로 그 자리에 대체하고 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성된 것들은 무슨 의미를 지닐까?

<Blue Ocean, 2021>의 작업은 둥그런 노란 판 위에 그림의 기호들을 단순하게 배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단순한 배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우선 노란 색의 둥그런 판은 아크릴 색으로 칠한 것이며, 그림의 기호들은 화장토로 분장된 도자 작품들이다. 이 두 개의 조합은 현대미술에서 함께 배치될 수 있지만, 모던의 예술 개념에서 보면 이 두 개의 조합은 하나의 그림에서 쉽게 배치될 수 없는 개념이다.

또한 <Blue Ocean, 2021>의 둥그런 노란 판은 그림 기호들이 배치된 위치들을 보면 시계의 원반을 상징화한 것이며, 그림 기호들은 사람들의 약속 기호들인 숫자들을 대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으로써 그림 기호들은 우리가 숫자로 인식하던 일상의 시간을 선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0과 1의 디지털 기호로 작동하는 컴퓨터의 화면과 같이 비선형

적으로 사유하게 되는 것이다.

회화와 도자 작업을 하나의 장르로 융합하는 개념은 철조로 된 어린아이의 두상들과 닭의 조형물을 융합한 작업에서는 조각과 도예의 작업을 하나의 작업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약속 기호로 상징되는 숫자로 된 시간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생명체의 생체 리듬으로 확장하여 해석하고 있다.

해체와 재구축은 그의 작업에서 예술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Blue Head, 2020>의 작업에서 보면 ‘해체와 재구축’의 의미는 예술 장르뿐만 아니라 일상의 사물들과의 융합을 통해서도 그 의미들은 재구축된다. 그것은 <Blue Head>의 작품에서 보듯이 철물점에서 파는 공구들을 두상과 융합함으로써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 있는 개념들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다가오게 하고 있다.

그의 작업은 장르적 개념만이 아니라 <Unknown Lady>의 작업을 통해 고전문화와 대중문화의 차이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대중문화를 상징하는 도자 접시에 18세기의 벨라스케즈의 초상화를 차용하여 제작한 <Unknown Lady>의 작업은 캔버스로 작업한 그림과 같이 등근 원형의 테라코타로 된 액자에 담아 전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의 작업 전반에 흐르고 있는 것은 <Apollo>의 작업에서 보듯이 익살스러움과 위트이다. 익살스러움과 위트는 작업 전반에서 제기하는 의미들에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적인 것들에 함몰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Apollo>의 작업에서 익살스러움과 위트가 잘 드러나는 것은 도자 접시의 형상이다. 도자 접시는 <Unknown Lady>의 작업에서는 캔버스로 사용되고 있지만, <Apollo>의 작업에서는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어 우주선의 프로펠러로 대체하고 있다. 그러한 익살스러움과 위트적인 요소는 사각형의 도자들로 이어 붙인 조각들을 우주선의 본체라고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그의 작업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색은 코발트 블루를 포함하여 파란색이다. 도예 분야에서 청자를 연상시키게 하는 파란 색은 그의 작품에서 전통적인 의미들로 재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작품이 비기능적이기는 하지만, 나는 종종 두상의 형태를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은 기능(도자의 전통 문양)과 또 다른 오브제와의 결합을 암시한다. 이러한 명백한 긴장감은 예술 대 공예 개념이 있는 내가 선택한 도자기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나 또는 전체 맥락에서 볼 때 그의 작품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이의 두상, 카타콤브, 바로크, 장수하늘소, 해골, 시간, 삶과 죽음.....등은 그의 작품들에서 그 개념들을 하나하나 해체하고, 이질적인 것들을 융합하여 재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의미들을 다시금 성찰하게 하는 기호들이다. 그러한 해체와 재구축의 끊임없는 과정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의 가치들을 이념(모던적 이념, 자본주의 이념...)에 의해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인 가치들을 그대로 성찰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조관용(미술평론가, 미술과 담론 대표)